

‘함께 멀리’… 한화, 올해도 우수협력사 격려

독일 바스프사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한화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우수협력회사 대표들과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우수협력회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화는 협력회사 대표들에게 우수협력회사 인증패와 트로피를 전달하며 상생협력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화는 회사와 함께 노력해온 협력회사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품질, 납기 등이 우수한 협력업체를 선정해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는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협력회사에 기술력 향상 및 생산혁신 아이디어 고취를 위한 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 심천을



지난 16일 한화 ‘2019 우수협력회사 시상식’ 행사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

방문해 중국 강소기업의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 이어 올해는 독일 바스프사 등을 방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회사 임직원들에게는 ‘함께 멀리’라는 한화의 동반성장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화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LGU+ “야구 레전드 선수에게 레슨 받자”

LG유플러스는 내달 7일까지 야구 미디어 플랫폼인 ‘U+프로야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상훈·양준혁 등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진행하는 ‘U+프로야구 레전드 끝장레슨’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슨은 10월 19일 09시부터 18시까지 목동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진행된다.

‘U+프로야구 레전드 끝장레슨’은 프로 야구 선수 출신 야구 전문가들이 LG유플러

스 고객 320명을 대상으로 직접 레슨을 제공하는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이다. 코치진은 1994년 LG트윈스 우승의 주역이며 KB O1호 국내 좌완 20승 투수인 ‘야생마’ 이상훈, KBO 올스타전에 총 15회에 걸쳐 선정되고 2010년 은퇴 당시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최다안타 등 도록을 제외한 타격 전부문(8개)에서 최다기록을 보유한 양준혁 전 프로선수 등 총 10명이다.



지난 6월 9일 ‘U+5G 사회인 야구대회’의 본선행 사로 진행된 원포인트 레슨. /LG유플러스

이번 레슨에서는 U+프로야구의 핵심 서비스인 ‘홈밀착 영상’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

오늘의 운세 9월 18일 (음 8월 20일)



36년생 중에는 신중하게 결정. 4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0년생 그리운 사람을 만나 기분 좋은 하루. 72년생 비가 와도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84년생 쓰는 공덕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37년생 자식들의 방문으로 당황할 일이 있다. 49년생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빛. 6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73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흥분하게 한다. 8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



38년생 중심을 잘 잡아야 분란이 없다. 50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활짝 열린다. 62년생 생각을 바꾸면 해답이 보인다. 74년생 공돌인 탐은 쉽게 무너지 않는다. 86년생 심신이 고달프나 금전 운은 있어서 다행이다.



39년생 깊게 담아 두지 말고 가볍게 생각. 51년생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63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75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듯. 87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불편.



40년생 제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픈 법. 52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64년생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수선해 놔야 한다. 76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절망은 금물. 88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 주는 힘.



41년생 사소한 실수로 원망을 듣겠다. 53년생 모래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65년생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77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89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



42년생 진실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54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건강에 신경 써라. 66년생 고복에 꽃이 피어나니 좋은 일이 있다. 78년생 삶의 중심에서 신용을 지키자. 90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자.



43년생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도 된다. 55년생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너무 동경하지 마라. 67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빠른 결단이 필요. 79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나서는 것이 좋다. 91년생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앞에 있다.



44년생 남들 이목에 신경 쓰지 마라. 56년생 순풍에 뒷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68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다. 80년생 투기인지 투자인지 잘 판단해라. 92년생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



45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적이 없다. 57년생 불이 나도 가까운 곳의 물로 끄야 한다. 6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 81년생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93년생 미래를 위해 일하고 좀 더 노력.



46년생 세월은 기억을 빼앗는 대신 통찰력을 준다. 58년생 친구를 위해 거짓 말을 하게 된다. 70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82년생 산토끼 잡으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4년생 때를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



47년생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59년생 문서나 계약서상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라. 71년생 윗사람의 총고는 수용하는 게 신상에 유리. 83년생 사문한 감정은 가족에게 들기지 않게. 95년생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텀뿌!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1		5				
2	5				9	6		
	4		3					
	1	8						
8		3					1	
	2	9	4					
	3	2		1				
7	1		6		4	5		
4		5		8		3		

2	1	6	7	5	1	2	8	3
4					7			
9		8	6	3	9	1	6	7
	4	6	7	2	9	5	3	8
1	6	2	9	5	3	6	4	7
8	2	9	5	1	7	8	6	2
4	3	5	1	7	8	5	3	1
6	5	1	3	4	7	8	9	6
2	5	1	3	4	7	8	9	6

스도쿠 정답								
9	4	6	7	5	1	2	8	3
7	1	2	8	6	3	9	1	6
5	8	3	2	9	4	5	3	8
1	6	7	2	9	5	3	6	4
8	2	9	5	1	7	8	6	2
4	3	5	1	7	8	6	4	7
6	5	1	3	4	7	8	9	6
2	5	1	3	4	7	8	9	6
3	9	8	6	1	2	7	4	5

문제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아야



기자 수첩

박 인 웅

(유통&라이프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농장은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춰진 농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는 창문이 없이 밀폐되고 있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지 않는 곳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농장을 관리하는 농장주와 직원 5명은 올해 국외 여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경기 파주시 한 데지농장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로 확진했다. 해당 농장은 245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어미 돼지 5마리가 고열로 폐사하자 농장주는 전날 오후 6시께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기도 위생시험소가 축방역관이 시료를 채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 폐사한 5마리 중 2마리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과 농장주가 족이 운영하는 농장 2곳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해 시료 채취하고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돈농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방역 및 소독을 철저하는 한편 종사자 간의 직접적 교류를 자제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parkiu7854@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운명론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죽는 순간이나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부자 부모를 만나 살더라도 유산을 불리지는 못할 망정 훌따 까먹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경우는 어린 나이에 이름을 날려서 소년급제를 부리워하지 말라는 속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장년과 중년 시절까지 계속 호시절이 이어지는 경우도 쉽지 않을뿐더러 고독한 말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참으로 복덕의 많고 적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정해진 사주팔자의 원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원래 사주팔자는 숙명론